

TDB 경기동향조사(전국) - 2021년 2월조사 -

2021년 3월 3일
주식회사테이코데이터뱅크 데이터솔루션기획부
https://www.tdb.co.jp
경기동향온라인 https://www.tdb-di.com

국내경기는 3개월 만에 플러스

~ 개인 소비 관련은 저수준으로 추이, 업종에 따라 체감경기에 온도차 ~

(조사대상 2만 3,702사, 유효회답 1만 1,073사, 회답율 46.7%, 조사개시 2002년 5월)

조사결과의 포인트

- 2021년 2월의 경기 DI는 3개월 만에 전월 대비 플러스(1.9포인트)된 35.8로 나타났다. 국내경기는 업종간에 온도차가 나타나나 생산확대 등으로 3개월 만에 플러스로 바뀌었다. 향후의 경기는 감염상황에 따른 하방리스크를 떠안고 있으나 봄 이후 완만히 상향할 것으로 전망된다.
- 전 10개 업계에서 전월보다 플러스 되었다. 반도체 관련 및 전자부품 등 『제조』를 중심으로 회복의 움직임이 나타났다. 한편 「료칸·호텔」 및 「음식점」과 같은 개인서비스에서는 저수준에서의 추이가 계속되어 업계·업종에 따라 체감경기에 온도차가 보였다.
- 『키타칸토』『토카이』『킨키』 등 전 10개 지역이 4개월 만에 모두 상향하였다. 일부 지역에서 긴급사태선언이 선포되었으나 감염자수의 감소경향 및 자택 내 소비 확대, 지역 내 주요산업의 회복 등이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. 도도부현(都道府県)별로는 42개 도도부현(都道府県)이 상향하였다. 규모별로는 「대기업」「중소기업」「소규모기업」이 모두 3개월 만에 플러스로 나타났다.

< 2021년 2월의 동향 : 악화 경향은 정지 >

2021년 2월의 경기 DI는 3개월 만에 전월 대비 플러스(1.9포인트)된 35.8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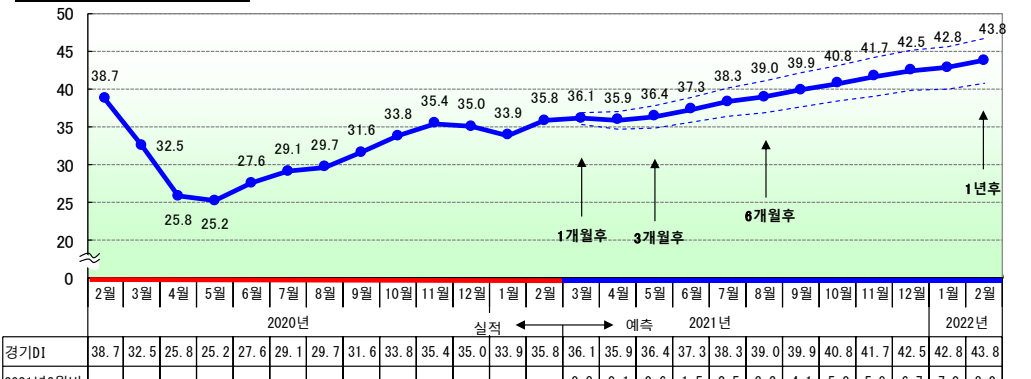
2월의 국내경기는 긴급사태선언이 10개의 도부현(都府県)에서 연장된 가운데 닛케이 평균 주가가 30년 반만에 3만엔 대로 상승한 한편, 수출용 기계관련 및 반도체, 전자부품 등의 생산확대도 있어 상승하였다. 또한 연말 수요에 대한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난 것도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. 게다가 자택 내 소비관련은 상승경향이 계속되었다. 한편 외출자제 및 영업시간 단축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억제가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다. 개인 소비 관련은 저수준으로 추이하는 등 업종에 따라 체감경기에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.

국내경기는 업종간에 온도차가 나타나나 생산확대 등으로 3개월 만에 플러스로 바뀌었다.

< 향후의 전망 : 봄 이후 완만히 상향 >

향후 1년 정도의 국내경기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상황에 달려있으나 백신 접종의 개시에 따른 경제활동의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 등으로 인하여 완만한 상향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. 또한 재택근무의 확대에 의한 주택 니즈의 고조 및 자택 내 소비 등 새로운 생활양식에 대응한 수요의 확대는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. 레저관련 및 방일 외국인 여행자들의 증가, 도쿄올림픽 개최 등이 기대된다. 한편 감염상황으로 인한 소비마인드의 후퇴 및 고용·소득환경의 악화, 활동자제에 대한 재요구 등 하방리스크도 여전히 클 것이다.

향후의 경기는 감염상황에 따른 하방리스크를 떠안고 있으나 봄 이후 완만히 상향할 것으로 전망된다.



※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 모델로 분석. 점선은 예측치의 폭(예측구간)을 나타내며, 예측치±2표준편차로 산출